

| | | | | | | | |
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|
| 성별 | 남성 | 나이 | 47세 | 직종 | 유류저장소관리직 | 직업관련성 | 낮음 |
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|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86년 □자동차 공장에 입사 후 안전환경관리실에서 3년 4개월 간 사무실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0년부터는 공장의 유류저장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. 2008년 8월초부터 감기 증세가 있어 근처 병원에서 편도염, 비염, 급성 비인후두염,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치료 받다가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009년 11월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 ○○○은 1986년 입사 후 3년 4개월간 안전환경관리실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, 그 후 1990년부터 19년 1개월간은 유류저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. 유류저장소는 모두 생산공장과 이격된 외곽의 옥외에 위치하고 있고 외부에서 탱크로리 차가 들어오면 저장탱크에 유류가 정상적으로 하차되는지를 감독하고 각각의 유류가 공장 내 작업장으로 파이프를 통해 잘 공급되는지를 사무실 안에서 확인하고 조작하는 업무를 하였으며, 공장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에 유류(LPG)를 주입하는 옥외 업무를 수행하였다. 직접적인 유류의 하차는 유류 운반기사가 직접 하였고 공장 내 유류의 이동도 파이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접적인 노출은 거의 없었다. 액체상 유류의 경우 탱크로리가 공장으로 들어오면 계근장에서 중량을 측정 후 저장용기와 탱크로리 간에 호스를 연결하여 하차작업을 하는데, 2000년 이전에는 계근장이 설치되지 않아 저장소 근로자가 탱크로리 상부에 올라가서 내용물의 용량을 확인하였다. 탱크로리 1대당 용량 확인 시간이 5~10분 정도였으며 이를 1일에 3회 정도 수행하였다.

3

해부학적 분류

호흡기계암

4

유해인자

화학적 요인(유기용제)

5

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평소 건강하게 지내오던 중 2008년 8월 초부터 감기 증세 있어 근처 병원에서 편도염, 비염, 급성 인후두염,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받았다. 그 후 증상 호전되지 않아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흉부 CT, 폐생검 결과 폐암(선암) 진단 받고 치료 받던 중 증상 악화되어 2009년 11월에 사망하였다.

6

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1986년 입사 후 □자동차 공장의 유류저장소관리 등의 업무를 약 22년 수행하였다.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과 관련 있는 6가 크롬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. 따라서 ○○○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